

# 2017년 북한의 산업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 I.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개관

### 1. 2000년대 북한 산업 회복 실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업 개관에 대해 살펴보면, 2000년대 북한 산업은 제한적으로나마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 속도에서는 산업별로 불균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북한 산업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표 1>의 주요 산업 생산량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산량 통계에 따르면, 북한 산업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1988년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8년도에 최저 생산량을 나타내다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약간의 진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산업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북한 산업 간에 굉장히 불균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의 산업별 추이를 보면 모든 산업들이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회복 양상을 보이는데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 농림어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며,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가장 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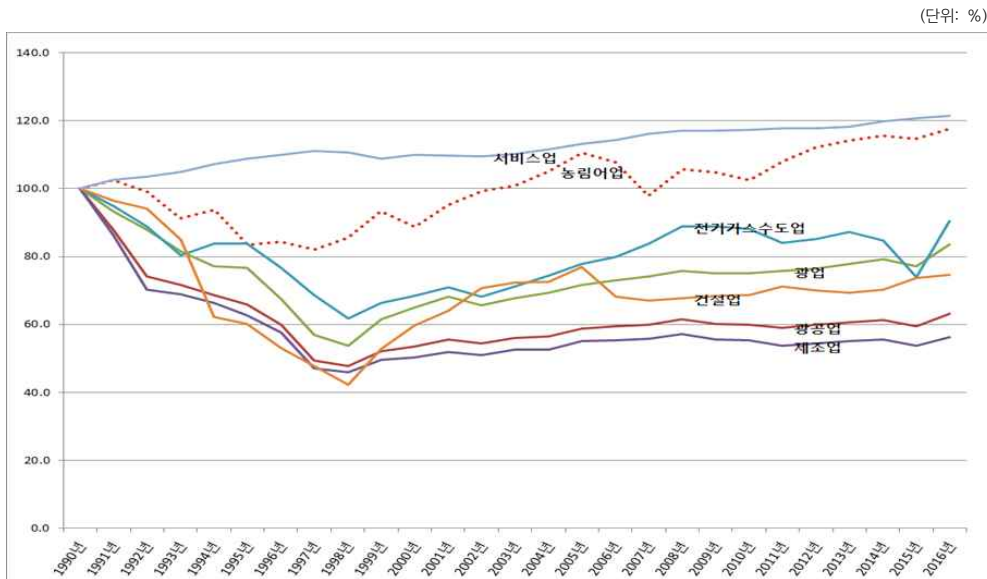
<표 1> 주요 산업 생산량 추이

(단위: 억kWh, 만톤)

	발전량	석탄 생산량	철광석 생산량	곡물 생산량	시멘트 생산량	강철 생산량
1988	279	4,070	1,030	521	978	504
1990	277	3,315	843	402	613	336
1998	170	1,860	289	389	315	95

	발전량	석탄 생산량	철광석 생산량	곡물 생산량	시멘트 생산량	강철 생산량
2002	190	2,190	408	413	532	104
2007	237	2,410	513	400	612	123
2008	255	2,506	532	431	642	128
2009	235	2,550	496	411	613	126
2010	230	2,500	509	-	628	128
2011	209	2,550	523	-	645	123
2012	215	2,580	519	-	645	122
2013	221	2,660	548	-	660	121
2014	216	2,709	547	-	668	122
2015	190	2,749	491	-	670	108
2016	247	2,920	575	482	708	122

[그림 1] 산업별 생산 추이



## 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에 대한 잠정적 평가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업은 크게 6가지의 특징적인 점들로 잠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첫째, 공식 부문이 최악의 상태를 지나서 부분적으로 회복 혹은 성장하는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둘째, 에너지 절약 및 전환을 위한 투자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계 및 관련 산업의 생산 능력이 회복되고 기술 역량이 확충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넷째, 반면에 화학 및 금속과 같은 소재 부문은 여전히 북한 산업 회복과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식품 가공 등 일부 소비재가 중국 제품과의 경쟁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ICT 등 기술 제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과 판매가 일반적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국내 제조로 전환되면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업에서 아주 크게 특징적인 점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2000년대의 흐름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좀 더 가시화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II. 2017년 북한 산업 동향

### 1. 2017년 북한 산업의 여건

2017년도는 2016년도에 비해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들이 악화된 상황에서 출발했다. 먼저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업 및 수력발전 부문이 2016년에 비해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2016년의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후유증으로 2017년에 상당의 조정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속도전이라는 것이 미래에 쓸 자원을 미리 당겨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전 이후에 필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6년 거의 한 해 동안 속도전을 했기 때문에 2017년 올해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로 인한 주력 수출 상품의 수출 감소와 그에 따른 수출광업, 수산업, 봉제의류 부문에 타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여력 감소에 따른 소재 및 기계류 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북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2. 2017년 북한 산업 동향

2017년 북한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 생산 및 투자 활동이 후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로는 2017년 11월 중순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주요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성과에 대한 보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과에 대한 보도 빈도도 줄었지만 그 구체성 역시 크게 감소되었다. 특히 2016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력과 석탄 부문에서 성과 보도가 크게 감소했다.

석탄 광업의 경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석탄공업성 차원에서의 생산량의 증가 내용이 수치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개별 탄광연합기업소나 탄광 차원의 성과 보도는 있지만 석탄공업성 차원의 성과 보도 자체가 없었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석탄공업성 전체로 '200일 전투' 기간 동안 전년 동기보다 110여 만톤의 석탄 증산(『노동신문』, 2016. 11. 05), 연간 계획 9.8% 초과 달성, 전년보다 200여 만톤의 석탄 증산 등 보도 빈도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노동신문』, 2016. 12. 16)가 많았으나, 2017년에는 11월 중순경까지 살펴보았을 때 탄광연합기업소나 탄광의 계획 대비 조기 완수만 보도하는 식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전력 부문에서도 전력 부문 전체와 주요 발전소 수준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보도되던 2016년과 달리, 2017년에는 부문 전체 차원의 성과 보도가 없었으며 개별 발전소의 성과 보도도 크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 북한은 수력발전 부문에 대해 성과 보도가 거의 없었다가 2016년 한 해에 보도 빈도수가 크게 늘었는데 2017년에는 다시 2015년 수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수력발전 부문은 10월에 '200일 계획'을 완수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순시로 60만kWh의 전력을 증산(『노동신문』, 2016. 10. 23)하였으며, 많은 개별 수력발전소의 성과가 보도되었다. 화력발전 부문도 북창 화력발전소, 순천 화력발전소, 청천강 화력발전소 등의 성과가 구체적인 전력 증산 규모와 함께 반복되어 보도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수력이나 화력 발전 전반의 성과 보도는 없이 서두수발전소와 순천 화력발전소의 성과가 보도되는 정도에 그쳤다. 이는 2016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최근 북한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설 활동도 전년도보다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4월 러명거리 준공식 이후에는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단천 수력발전소가 건설 추진 중에 있지만, 작년에 희천 수력발전소나 백두산영웅청년 발전소와 같은 자원의 집중 투입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토목사업 중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해산-삼지연 철도 건설사업이다.

2017년 북한 산업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김정은 정권 들어 처음으로 올해 새로운 대규모 설비투자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6년 당대회에서 밝힌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순천 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공정과 김책 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주체철 생산)로 건설투자를 시작했다.

한편, 대중무역에서 수출은 당연히 큰 폭으로 줄었는데 수입은 아직 현저하게 위축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3월 이후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이 중단되는 등 감소하기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28.1%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경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여 전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7년 10월 말까지의 누계와는 달리 8월 이후에는 수입의 전반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수입의 감소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중수입이 10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10월 동안의 수입 감소세가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으나, 만약 이 3개월간의 감소가 제재로 인한 감소라면 추후에 제재 효과가 산업 전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0월 말까지 화학제품, 섬유류 및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철강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소재 및 기계류 수입의 누계는 늘어나고 있으나 8월을 기점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주요 제품의 대중수입 동향

(단위: %)

산업	품목	1-10월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8월 이후
화학제품	유기화학물	19.9	8월 감소
	무기화학물	22.0	8월 감소
	비료	-3.4	4월 이후 급증, 10월 감소
	플라스틱제품	16.3	8월, 10월 감소
금속류	철강(HS72)	-25.6 (수출: 65.7)	
	철강제품(HS73)	-3.1	8월 이후 감소
기계류	기계류(HS84)	5.3	8월 이후 감소
	전자제품(HS85)	15.5	8월 이후 감소
	수송기계(자동차)	-0.5	8월 이후 큰 폭 감소
섬유류	HS54	33.8	8월, 10월 감소
	HS55	25.5	8월 감소
	HS61	7.9 (수출: -34.5)	8월 이후 감소
	HS62	-10.6 (수출: 16.3)	9월, 10월 큰 폭 감소

### III. 결론

2017년 북한 산업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6년에 있었던 속도전 후유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16년에 300일 가까이 지속된 속도전 이후 조정의 필요성으로 2017년 1/4분기 혹은 상반기에는 생산과 투자 활동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년과 대비되는 『노동신문』 등의 성과 보도 추이를 통해 2017년에 생산 활동이 둔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투자 동향 보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인다. 김정은은 2016년 개최된 당대회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순천 화학연합기업소에 대규모 메탄올 생산 공정을 건설할 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2015년 말의 황해 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현대화 투자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 북한은, 2017년에 김책 제철소에 대규모 산소열법용광로 건설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의 대규모 설비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 투자 프로젝트가 2017년 5월경에야 착공되었다. 그리고 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단천 발전소 건설 공사도 5월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투자의 지연은 2016년 속도전 이후의 조정기의 필요성 때문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7년에는 2016년과 달리 새로운 속도전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라는 형태의 선동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전체나 기업 전체의 차원이 아닌 부문 혹은 개인 차원에서 성과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속도전의 성격보다는 통상적인 선전·선동에 가깝다.

대북제재는 수출광업이나 수산업, 수출 봉제의류 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북제재가 북한 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8월 이후 관측 자료에서는 수입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북제재의 영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8~10월의 수입 감소가 제재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내년 2018년에는 북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중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여 2017년 북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은 2016년 속도전 이후의 조정 필요성과 악화된 기후 조건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은 아직 전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